선민에게 추경예산은 없다

(미가 6장 1절~16절)

3.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13.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14.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15.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16.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 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선민에게 추경예산은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선민에게 추경예산은 없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3절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이 배반하거나 불순종할 빌미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께서는 13~16절에 나타나는 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추경은 추가경정(追加更正)의 줄임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정부는 역대 정부 중에 없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현 정부도 금년에 6조 7천억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승인까지의 길이 유달리 험난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는 지금 세 번째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이제까지 이렇게 진통을 겪은 적은 달리 없었다고 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해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경제 상태가 예상 밖으로 안 좋다든지 자연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할 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만들고 승인해서 국정운영이 원활하도록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보수 야당의 극심한 반대로 진통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신앙적인 의미에 빗대어 생각해봅니다. 선민만을 염두에 두고 말하자면 선민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추가경정 예산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선민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마음의 지출을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본문 13~16절을 보면 선민이 치를 대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먼저 13~14절을 보면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선민들이 굶주리게 될 것이며 도적질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을 보면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애써서 농사를 지어도 추수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이고, 감람 열매의 기름까지 다 짜놓고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포도 농사를 지어서 다 수확해놓고도 술을 만들어 마시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는 선민의 삶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서서 막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3절에서는 하나님은 선민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으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민들의 시도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과를 막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애써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되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진심으로 바라던 일 중에서 지금까지 몇 가지나 이루셨습니까? 아마도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바라며 착수해서 결말을 본 일들이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을 하나님의 의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원수가 안 되게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되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온 마음을 다해 애쓰고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한 일들이 막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선민은 운명적으로 땅 위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가장 무력하고 약한 자들입니다. 이렇다할만한 성취가 불가능하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사건을 붙잡고자 한다면 앞뒤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민의 반열에 들어서면 인간 세상에서는 절대로 괄목할만한 성공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 사소한 일조차도 선민인 한 바라는 대로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선민에게 이러한 삶은 운명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며 축배를 들 때에도 선민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로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세상에 대해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

는 것입니다. 선민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이 이 세상을 향해 나타낼 수 있는 열심 자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풀이하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한분만으로 기뻐하라"는 뜻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기쁨으로 대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기쁨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는 일에 힘쓰도록 하시기 위해 선민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또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 선민들을 저주하도록 하였을 때에도 저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충만한 저주의 기운을 차단시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선민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유일한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선민의 마음과 뜻과 힘은 이미 지출명목이 정해진 본 예산안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하나님을 가지고자 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예산의 지출 가능성은 이미 하나님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계획안에 없었던 일들에 마음을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선민이 사업에 마음과 뜻과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안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과 뜻과 계획과 상충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선민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몄다고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선민인 이상 가장의 의무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시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가정에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안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선민의 마음과 뜻과 힘은 오직 하나님께 쏟아야만 하는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민의 마음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도 사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민을 자처하면서도 하나님보다 가정에 마음과 뜻과 힘을 쓰고자 하니 잘 될 리 없습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예산안에 애초에 존재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위태롭게 보여서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런 추경예산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국회에서 정부가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붙잡고 진통을 벌인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감람나무의 열매를 밟았는데도 그 기름을 바르지 못할 것이고, 포도를 밟아 술을 만들어도 마실 수가 없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러합니다.
선민들의 하는 일을 막으시는 이유는 바로 선민들이 하나님 대신 농사로 인한 풍요로움에 마음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추경예산을 허락하지 않으신 일이었습니다. 선민들은 하나님 대신 포도주로 기쁨을 얻으려 했고, 감람 열매의 기름으로 기쁨을 얻으려 했고, 밭의 소출로 기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추가경정 예산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북 왕국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와 아합 왕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들은 북 왕국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물들였던 역사의 주인공으로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풍요와 다산을 추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선민의 마음은 세상에서 부자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산에 없는 일들을 하려고 하였기에 하는 일마다 안 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선민이 직장에 다닌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모든 사람들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월급이 오르는 것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는 도중에 끊임없이 동료들과 경쟁하고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부담감으로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직장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안에서 다른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선민이시라면 직장 안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기쁨과 만족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직장에서의 일은 내 일이 아니게 됩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다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직장일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녀를 예로 들어봅니다. 선민이라면 비록 부모일지라도 자녀를 위해 쓸 수 있는 마음의 추가경정 예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민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기쁨과 만족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마주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였다면 더 이상 자녀를 위해서는 마음도 뜻도 힘도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비로소 이러한 상태가 될 때에 하나님은 부모의 생각과 의지를 장갑 삼으셔서 자녀와 관계해 나가실 것입니다.

선민은 하나님만을 기쁨과 만족으로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선민이 아닌 사람들은 사업이 안 될 때에 대출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처에서 주문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할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헌금도 하고 십일조를 미리 내면서 넘치도록 돌려받게 될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이름만 기독교인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선민이라면 어떻게 사업에 임해야 할까요? 사업이 망해가고 있더라도 참 선민이라면 그 일에 마음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기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민의 모습입니다. 사업이 안 되더라도 일단 하나님으로 기쁘고 봐야 할 사람이 선민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도 선민이라면 일단 하나님으로 기쁘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대는 것마다 막으실 것입니다. 자녀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때에 오히려 자녀는 더 어긋날 것입니다.
선민의 삶은 이 하나의 원칙으로 일관됩니다. 이 세상에는 마음의 추가경정 예산을 적용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삶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먼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때에 내 생각은 더 이상 내 생각이 아니게 됩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에서 떠오르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 자신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함의 특징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계획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삶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민들을 출애굽 시키신 이야기, 발람 선지자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이야기,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하실 때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은 이상하게도 떨기나무를 태워서 재로 만들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모세와 요셉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만족하기 위해 마음과 뜻과 힘을 쏟아 부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불이 떨기나무를 재로 만들지 않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을 떨기나무로 사용해서 하늘의 에너지가 임합니다. 하늘의 에너지를 받아 하는 일에는 지치고 피곤함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31절에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 것 없는 힘은 하나님 한 분을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추구하기 위해 다 써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과 뜻과 힘이 세상일에 쏟아 부어지도록 추가경정 예산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내 건강에 대해서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유일한 기쁨으로 추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선민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대해 하나님이 결정하신 본 예산안입니다.
인간이 지출할 수 있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이 전부입니다. 돈을 지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출했기에 돈이 사용되는 것뿐입니다. 그 마음과 뜻과 힘을 지출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선민들에게 본 예산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볼 때에 선민들은 본 예산안대로 지출을 하지 않고 제멋대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워놓고 허락도 받지 않은 채로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내키는 대로 사업과 건강과 가족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쓰는 동안 인생은 고달파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지금도 허락하고 있지 않으신 추경 예산을 강제 집행하려는 나의 원죄적 체질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상일에 마음이 가고 뜻이 가고 힘이 가려고 할 때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불법적으로 강행하려는 나를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추구할 때에, 이 세상일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이 지출되도록 세운 예산이 있음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의 죽음을 날마다 복용함으로써 더 이상

세상에 대해 마음과 뜻과 힘을 지출하고 싶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안달하는 삶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계획해놓으신 예산안,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이 지출되는 예산안만이 집행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본 예산안을 따라서 하나님을 유일한 기쁨과 만족으로 추구하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